

## 도덕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Christian Approach to the Moral Education

김 찬 태

### I. 서 론

일반적으로 도덕교육이라 하면 도덕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뜻할 수도 있는데 이 글에서는 넓은 의미로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한다. 즉, "항상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보호하여 가르치는 것"<sup>1)</sup>을 도덕교육으로 본다.

도덕교육이 아동을 바른 길로 이끈다는 데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길이 바른 길이나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생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 하겠다. 반면에 비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형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원형이 아니고 그 원형을 나타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형상이라 함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 원형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 만물은 그 창조주를 나타내고 있다(롬1:20). 파케마교수는 거울 속의 자기 형상이 거울 밖의 자기 모습을 반사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반사해서는 안되고 인간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사해야 한다고 했다.<sup>2)</sup> 예를 들면, 하나님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의 원형적 형상인 인간은 도덕적인 속성을 스스로 반사하여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도덕교육이란 인간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사는 삶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파케마 교수는 "부모와 교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원형)로 아동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부모와 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에게 나타나므로 아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해야 한다"<sup>3)</sup>고 했다.

그러면 현재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떠한가? 아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보다 오히려 아동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명령을 하지 말고 부탁 - "좀 해 주겠니?" - 을 하라고 한다. 또 아동의 나쁜면을 꾸짖지 말고 좋은 면만을 보아 칭찬하도록 한다. 그 결과 부모와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여야 할 아동은 점점 교만하여 권위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 아동이 된다. 그리고 아동의 잘못에 대해 일관성 없이 감정적으로 벌을 주거나 그냥 넘겨버려 도

덕교육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아동으로부터 자기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 그러면 올바른 도덕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 II. 본 론

인간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바른 길이며 최고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줌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올바른 도덕 교육이라면 아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가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도덕교육의 가장 큰 원인은 아동이 누구인가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 1. 아동은 누구인가?

파케마 교수는 아동의 심리적 생활의 3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4)</sup>

(1) "아무것도 아닌 자"(형상)에서 "대단한 자"(원형)로의 심리적 전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7살 때에는 독립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다가 21살이 되면 독립성이 완전히 드러난다(그림1 참조). 이 독립성은 14살을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한다. 여자는 조금 더 빠른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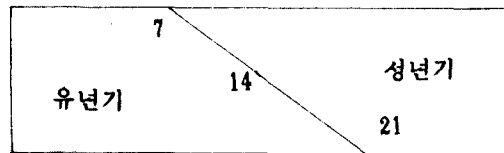


그림 1

(2) 유년기에는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또한 소속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강하다. 어린이가 가정이나 교회, 또는 학교에서 올바른 기독교교육을 받았다면 가족 공동생활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하나님과의 공동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3) 그림 1의 대각선은 어린이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왼쪽은 "유년기"로서 "공동생활" 곧 부모가 그 머리(원형)이고 자녀들이 그 지체(형상)인 가족 공동체의 생활을 나타낸다. 오른쪽은 "성년기"로서 개인생활, 곧 원형적 형상으로서의 생활을 나타낸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은 개인생활보다 공동생활의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파케마 교수는 "어린시절에는 도덕 훈련의 초점을 그 어린이 자신에게 맞추지 말고 그 어린이의 공동생활에 맞추어야 한다."<sup>5)</sup>고 했다. 이 말은 어린이의 기본적인 공동생활은 가정과 학교생활이므로 가정과 학교의 공동생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대회에 나가 1등을 하여 상을 받았다면 그 아이가 잘했다고만 칭찬하면 안된다. 그것은 초점을 그 아이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다. 그 상을 받도록 지금까지 도와주



## 필자소개

필자는 대구교대 윤리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금통군 유촌국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방법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다.

신 부모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여 가정과 학교생활이 더욱 견고 해지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의미있게 한다.

이 공동생활이 잘 유지되려면 부모는 가정 공동체의 머리로서 자녀들을 통제해야 한다. 이것은 부모가 반항하는 자녀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의무이다.<sup>6)</sup> 어린이가 가정에서 공동생활을 잘하도록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아동이 바른 길을 가도록 보호하여 가르쳐야 한다. 아동의 잘못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리고 어린이의 기본적인 공동생활의 또 한 부분은 학교생활이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아동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르침을 받는다. 가정에서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학교 공동체에서는 교사가 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아동을 통제하며 반항하는 아동을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사의 의무이며 잘못된 아동에 대한 책임이 교사에게도 있다.

이러한 권위와 책임을 가진 부모와 교사는 아동이 잘못을 범할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 2. 아동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지도방법

아동이 잘못을 범했을 때 대개의 부모나 교사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대한다. 화를 내어 감정적으로 꾸짖거나, 대수롭지 않은 듯 그냥 넘겨 버린다.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는 큰 소리로 다그치고 그 잘못에 대한 보복으로 벌을 준다. 또 잘못된 만큼의 벌을 받으므로 잘못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아동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지는 않은 고려하지 않고 대개 부모나 교사 자신의 화가 풀리면 용서해 준다. 그런데 "벌을 준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벌은 잘못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sup>7)</sup> 고 파케마 교수는 말한다.

그리고 분명히 아동이 잘못을 했는데 부모나 교사가 그냥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잘못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을 자기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일로 바쁘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부모와 교사가 어린이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

로 처벌하지 못하면 그들 자신도 그 어린이와 똑같은 잘못을 범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부모나 교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또 같은 잘못에 대해 일관성이 없이 때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다르면 아동은 갈피를 못잡아 눈치를 보게 되며 처벌 받았을 때에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외적인 환경(부모나 교사의 기분, 그날의 날씨 등)이 좋지 않아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처벌의 효과가 적다.

파케마 교수는 잘못된 도덕교육 방법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를 지적했다.<sup>8)</sup>

첫째, 보상주의 방법. 잘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키는 이 방법은 상업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오늘날의 특징이다.

"100점 맞으면 돈 1,000원 주겠다." 등. 그런데 이 방법은 솔직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린이의 도덕성을 해칠 우려가 많다. 순종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게 되며 이 때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도덕적 행위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면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둘째, 율법주의 방법. 율법주의는 도덕법을 지켜 외를 쌓아 그것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스스로 의롭다(스스로 나는 착하다)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면 어린이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파케마 교수의 도덕교육 방법을 중심으로 그 해답을 찾아보자.<sup>9)</sup>

그는 빗나간 어린이를 다룰 때는 그 아이의 마음에 호소하라고 한다. 먼저 교사와 아동이 서로 마음을 터 놓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이 때 대화를 나누는 목적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잘못을 되돌아 보는 데 있다. 즉 대화를 통하여 그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잘못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도록 한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계속 시인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다음날로 미루어 다시 대화하고 그래도 잘못을 시인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면 벌을 주어야 한다. 이 벌을 통하여 아동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한다. 벌을 통하여 아동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되면 잘못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도록 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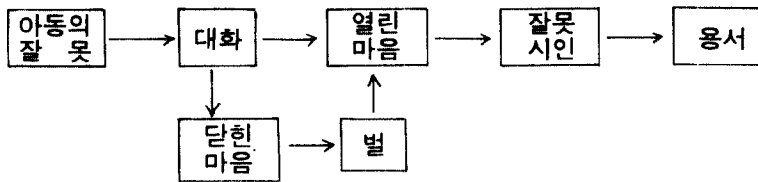


그림 2

이 때 벌에는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권리를 빼앗는 것, 매를 드는 것 등이 있는데 형편에 맞게 주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동이 좇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와 부모는 독재 군주처럼 무조건 순종만 요구하면 되는가?

### 3. 부모와 교사의 할 일

부모와 교사가 아동을 교육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왓트링크 교수는 사랑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10)</sup>

"사랑이 없이는 아동을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사랑이 없는 교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인내심마저도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랑이 없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에 응하게 하는 그 고유한 특질이 교육에서 소실되어 진다는 사실이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명령의 남발일 뿐이다. 명령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일 따름이다. 명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법망을 뚫고 나갈 구멍을 아는 수많은 존재로 만들 수는 있으나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좋은 교육이 되려면 현재의 아동이 교육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그 교육을 통하여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율법과 명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아동에 대해 올바른 훈계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교사와 부모의 할 일이다. 수잔 세퍼 맥콜리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For The Children's Sake)에서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아이들은, 살롯 메이슨이 주장한 대로 그들의 생활이 가장 만족스러운 때에 가장 순종을 잘합니다. 그들의 정신이 흥미를 느낄 때에 기술 습득을 잘하게 될 것이며, 즐겨 사랑하며, 창의력은 돋우어지고, 자연과 미술, 음악

에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것입니다." <sup>11)</sup> 라고 하여 부모와 교사가 그들이 만족감을 많이 느끼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그들이 만족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녀는 그들을 섬기고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지도력이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른다면, 거친 행동, 두려움, 독재 등은 배제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의 필요와 능력을 깊이 생각하며 그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sup>12)</sup> 이렇게 할 때 아동은 부모와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를 뿐 아니라 지도력이란 무엇인가도 배우게 될 것이다.

### III. 요약

도덕교육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을 시도해 본 이 글에서는 파케마 교수의 견해를 주로 참고 하였다. 그것은 필자가 그 책에서 본 도덕교육 방법을 현장에 적용해 본 결과 아동들의 태도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덕교육이란 항상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보호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서 바른 길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동을 보호하여 가르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교사에게 맡겨 주셨다. 그러므로 아동은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해야 한다.

아동의 잘못에 대한 바른 지도 방법은 아동과의 대화를 통해 아동이 슬픔과 후회와 죄사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아동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당한 벌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한다. 그런데 벌을 피하려고 습관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을 쉽게 범하는 아동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 하겠다.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이 사람으로 아동이 좌절감을 맛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아동을 섬기며 존중하는 자세로 만족스러운 상황을 마련해 줄 때 아동은 잘 순종하게 된다.

효과적인 도덕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겨 주었음을 알아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동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 END NOTES

1. J. Waterink, 김성수, 김성린 역, 기독교 교육원론, 소망사, 1982, p. 84
2. M. Fakkema, 황성철 역, 기독교교육철학, 한국기독교 교육 연구원, 1982, p. 23
3. 위의 책, p. 268
4. 위의 책, p. 262
5. 위의 책, p. 270
6. 위의 책, p. 269
7. 위의 책, p. 283
8. 위의 책, pp. 271-275
9. 위의 책, p. 282
10. J. Waterink, 위의 책, p. 66
11. Susan Schaeffer Macaulay, 박경옥 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 라브리, 1988, p. 76
12. 위의 책, p. 76

### 질의 응답

질1.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답: 아동에게 부모와 교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부모와 교사가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

님께서 꾸중 하시지만 아동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교사에게 맡겨 주셨으므로 아동의 잘못은 부모와 교사가 꾸중해야 되는 판계임을 알려주어 단지 아동이 부모와 교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무조건적인 순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2. 반에서 처벌을 하여 잘못을 알게 한 사례에 대하여

답: 숙제를 안 해온 아동에게 어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고 숙제를 안 해온 이유를 분명히 안다. 만일 자기의 태만 때문이라면 그것이 잘못인지 묻고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도록 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논하고 돌려보낸다.

그런데 아동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교사 자신에게도 있음을 알고 그 아동이 다음에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위의 예에서는 공부할 시간을 정해 주어 잊지 않도록 한다거나 숙제할 분위기가 안 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고 가도록 도와준다.